

일차 보건의료와 간호, 조산업무에 관한 연찬회

김 진 순(KHDI 연구위원)

1. 연찬회 개최 배경

오늘날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국민의 보건의료 충족을 위한 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는 1978년 9월 소련 알마아타시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건강이 인간의 기본인권"이며 2,000년까지는 모든 인류에게 균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천재하고 해결방안으로 일차보건의료 접근법을 강권수단으로 선언하였다.

WHO 서태평양지역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한국보건개발 연구원에 의하여 일차보건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새로운 인력으로 보건진료원(CHP)을 개발 활용하게 되었다.

한국보건개발 연구원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1977년 9월엔 세미나를 개최하여 primary health care를 우리나라



라의 실정에 맞는 용어로서 잠정적으로 "일차보건의료"라고 설정하였으며 일차보건의료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동안 일차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토의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논란되었으며, 1978년 12월에 WHO 서태평양지부는 Regional workshop on Nursing/midwifery(wifery) in put in PHC를 마닐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workshop에 대비하기 위한 national workshop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일차보건의료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인력은 간호원이 라는 사실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간호원의 참여 및 실제활동방법 및 이에 따른 제반 방안을 모색하게 됨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WHO 서태평양지역에서 고문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경식 박사님께서 이 workshop이 개최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아울러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보건사회부와 간호협회가 후원하여 주셨고 WHO와 UNICEF의 지원으로 이 workshop이 개최되었다.

2. 연찬회 목적

일차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보건의료인력으로서 간호조산원의 활용과 효율적

인 활동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첫째, 일차보건의료사업에의 간호조산원의 역할과 기능설정

둘째, 일차보건의료사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간호요원의 활동범위의 확대 방안 결정

셋째, 일차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있어 간호인력의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설정

넷째,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조산인력의 확대된 역할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 및 제약점 노출과 해결

다섯째, 시범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사업 실시에 필요로 되는 간호·조산인력의 확대된 기능과 역할의 범위를 전의함

3. 연찬회 진행내용

박승환 보사부차관, 권이혁 이사장(KHDI), 유영해 당연위원장, 김성배 강원도부지사, WHO 주한대표 및 이정식 박사, 김도임 대한간호협회장, 전산조 보건정책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연찬회 참석자는 관계기관에서 10명, 드청 보건간호원 10명, 간호교육기관 10명, 시범사업지역 10명, 보건 및 간호전문단체 10명, 언론기관 3명, WHO 및 UNICEF 4명 등 모두 67명이었다. 연찬회는 23일 오후 1시 30분 개회사로부터 시작하여 오후 2시에 개회식을 끝마쳤다. 2시부터의 전체회의에서는 “일차보건의료와 간호조산업무”에 관한 주제강연이 김도임 간호협회장에 의하여 발표되었으며 이어서 논제 발표에 들어갔다. 김도임 간호협회장은 주제강연에서 간호원의 역할과 기능의 설정과 일차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는 기존인력 중 교육 배경이나 경계성 등으로 볼 때 간호원 활용이 가장 타당하고 효율적임을 강조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의 박노에 보건관계관은 “일차보건의료사업에의 간호원 참여현황”이라는 논제발표에서 보건소 학교 등에서 일차보건의료사업을 펴고 있는 전문직 간호원들 중 태반이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3%만이 정규직이며 대우, 신분보장, 행정지도체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이 시정된다면 간호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질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서 엄재정 전주 예수간호전문대학장은 “일차보건의료 접근을 통한 도자보건사업 강화”라는 논제발표에서 일차보건의료 접근 방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였으며 도자보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각 논제에 따른 패널토의가 있었다.

24일 오전의 전체회의에서는 군위군 시범사업 지역의 이육자 보건진료원에 의하여 “일차보건의료 시범 사업지역에 있어서 간호업무 수행에 따른 제약점”이 발표되었다. 이 제약점에서는 전문직업인사이의 비협조 및 마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결여와 이해부족, 활동에 따른 충분한 법적보장의 미비, 행정적 뒷받침 미흡 등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하영수 이대 간호대학장과 연하청 한국개발원 수석연구원이 “일차보건의료 사업에의 간호원 참여에 대한 전략 및 일차보건의료사업 추진과 간호조산원 참여의 사회경제적 의의”라는 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전략으로서 는 일차보건의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훈련이 현행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합한 지역사회간호 일차보건의료 제공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보건의료의 방해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정책과 법적, 직업적 규제를 검토해서 그러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들을 제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하청 박사는 비용, 활동성에서 간호원 참여가 가장 적절하고 군단위 보건소 재정 자립도 보다는 보건지소(보건진료원이 비치되어 있는 곳)의 재정 자립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간호원을 활용하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 포괄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후에는 흥천군 시범사업 지역을 시찰하고 화촌면 장평보건 진료지소와 상화계 보건진료지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으로 부터 보건의료활동의 계획,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가졌으며 시설 및 활동 기록부를 두루 살펴보았다.

25일 오전의 분과토의에 들어가기 앞서 WHO 서태평양지부의 이경식 박사로부터 이번 연합회의 개최배경, 목적 및 분과별로 토의될 과제를 위한 방향제시가 있었다. 분과 토의는 오후까지 계속되었으며 분과 I에서는 “일차보건의료사업에의 간호·조산원의 활동범위”를, 분과 II에서는 “일차보건의료접근을 통한 모자보건사업”을, 분과 III에서는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간호업무 수행에 따른 제약점 및 해결방안” 그리고 분과 IV에서는 “일차보건의료 수행에 있어서 간호인력의 활동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 토의되었다.

각 분과에서 토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분과 I : 일차보건의료사업에의 간호·조산원의 활동 범위

가. 기술적인 요소

1. 단손치료사업 : 응급처치로서 내과, 소아과, 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및 부인과적 제증상 및 질환치료
2. 모성보건사업 : 임신부 조기발견, 산전 관리, 분만관리, 3기치치, 산후관리, 가족계획, 영유아관리
3. 환경위생 : 상하수도관리, 오물처리, 텃소 개량, 부영위생관리, 보건교육
4. 만성질환관리 : 결핵, 성병, 나병, 산일, 당뇨병, 고혈압
5. 학교보건
6. 정신위생관리
7. 추후관리
8. 산업장 건강관리
9. 원조활동 및 사업 : 훈련지도, 교육, 약품 관리, 2차기관에 의뢰
10. 기 타

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 : 지역사회발전 요소, 지역사회 참여 및 조성요소, 경제적 요소

분과 II : 일차보건의료 접근법을 통한 모자보건사업

가. 현 모자보건사업의 문제점

1. 모자보건사업이 지역사회개발조직과 격리되어 있다.
2. 현 보건의료제도상 모자보건사업을 지역사회의 말단 하부구조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3.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
4. 비위생적 가정분만율이 높다.

나. 해결방안

1. 지역사회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지역사회가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체제가 일원화되도록 하며 보건요원에게 교육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다목적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마을건강원을 개발하고 의사, 간호·조산원, 보건요원, 마을건강원이 하나의 팀을 형성하여 기본적 의뢰체제를 형성한다.
 3. 기동력 및 통신망의 강화
- 분과 III의 건의사항은 장기근속 현지보건요원에 대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조산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분과 III :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간호업무

수행에 따른 제약점 및 해결방안

이 분과에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제약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행정적 측면 : 지도감독의 다원화, 기술면의 다원화 및 사업계획의 하향식 전달과 목표설정과 평가가 양적으로 치우쳐 있다.

나. 교육면 : 신규요원을 위한 즉각적인 사전 교육기회의 결여, 현지근무자의 보수교육 부족, 타 보건요원 및 일반행정요원간의 이해 및 협조 미비

다. 조직면 : 의회체계의 결여, 간호원과 보조원의 역할구분의 불명확, 보건요원을 위한 작업환경 불충분

라. 지역사회 측면 : 주민의 보건소에 대한 기존인식 결여, 지역사회주민의 전통적 생활습관, 관습적인 사고 및 타조직과의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다. 예산면 : 기본적인 물품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물품공급시 적량이 적기에 행해지지 않음. 구입방법의 복잡성

바. 법적 측면 : 예방접종, 분만 등 간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보장이 없음.

사. 처우개선 : 기본적급의 조정, 임시직으로 인한 신분보장이 안됨. 임시적이기 때문에 기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과Ⅵ : 일차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있어서 간호인력의 활동 극대화를 위한 전략

전략의 기본으로 “국가수준의 보건정책 결정에 있어서 간호분야 전문인이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를 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로는 다음과 같다.

1. 국민 전체에게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차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한다.

2. 보건정책수립자에게 PHC의 중요성 인식을 재고시킨다.

3. PHC시행에 있어서 간호요원의 기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의사의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재인식시킨다.

4. PHC에 있어서 모든 간호전문직들의 일치된 역할을 재확인 시킨다.

26일의 전체토의에서 분과토의 결과의 요약보고에 이어 총괄적 토론과 전의사항을 채택하도록서 연찬회를 끝맺었는데 전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차보건의료사업이 1982년 부터 실시되는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중요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2. 기회 조직된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토록 전의한다.

3. 정부 기구내에 일차보건의료사업을 관장할 기구의 설치 및 기술자도 감독체계의 일원화를 기하도록 전의한다.

4. 기존보건분야 간호원들에게 6개월의 조산실습교육을 이수케 하여 조산면허를 부여토록

한다.

5. 기존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간호과정 및 국립기관의 보건간호이수 과정의 교과과정은 일차보건의료 사업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재조정 활용한다.

6. 일차보건의료 요원훈련을 위한 교사훈련을 보건사회부가 실시하도록 한다.

7. 일차보건의료사업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기술과 재정지원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아동기금에 요청한다.

8. 일차보건의료확대를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등과 같은 의료전문단체가 적극 참여, 협조토록 한다.

9.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1년과정이수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므로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10.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시범사업에서 실시 수행되고 있는 보건진료원의 활용을 계속 강화한다.

11.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서는 위의 전의사항이 실현되도록 계속 추진하는데 협력할 것을 전의한다.

이상의 전의사항을 채택하고 4일간의 연찬회를 끝맺었는데 위의 전의사항이 실현되도록 계속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추진위원은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협회, 조산협회, 간호학회, 간호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각 1명과 추진위원회 실무준비로서 박노예 보건연구원, 정연강 교수, 이평옥 교수, 박신애 교수 및 김진순 연구위원으로 정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간호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절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 참석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특히 춘천간호전문대학, 대한간호협회 강원지부, 보건간호원회 및 강원지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찬회 준비위원 및 앞으로 수고하여 주실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서는 연찬회 진행중에도 헌신적인 참여를 하여 주셨고 이경식 박사님과 김모임 간협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